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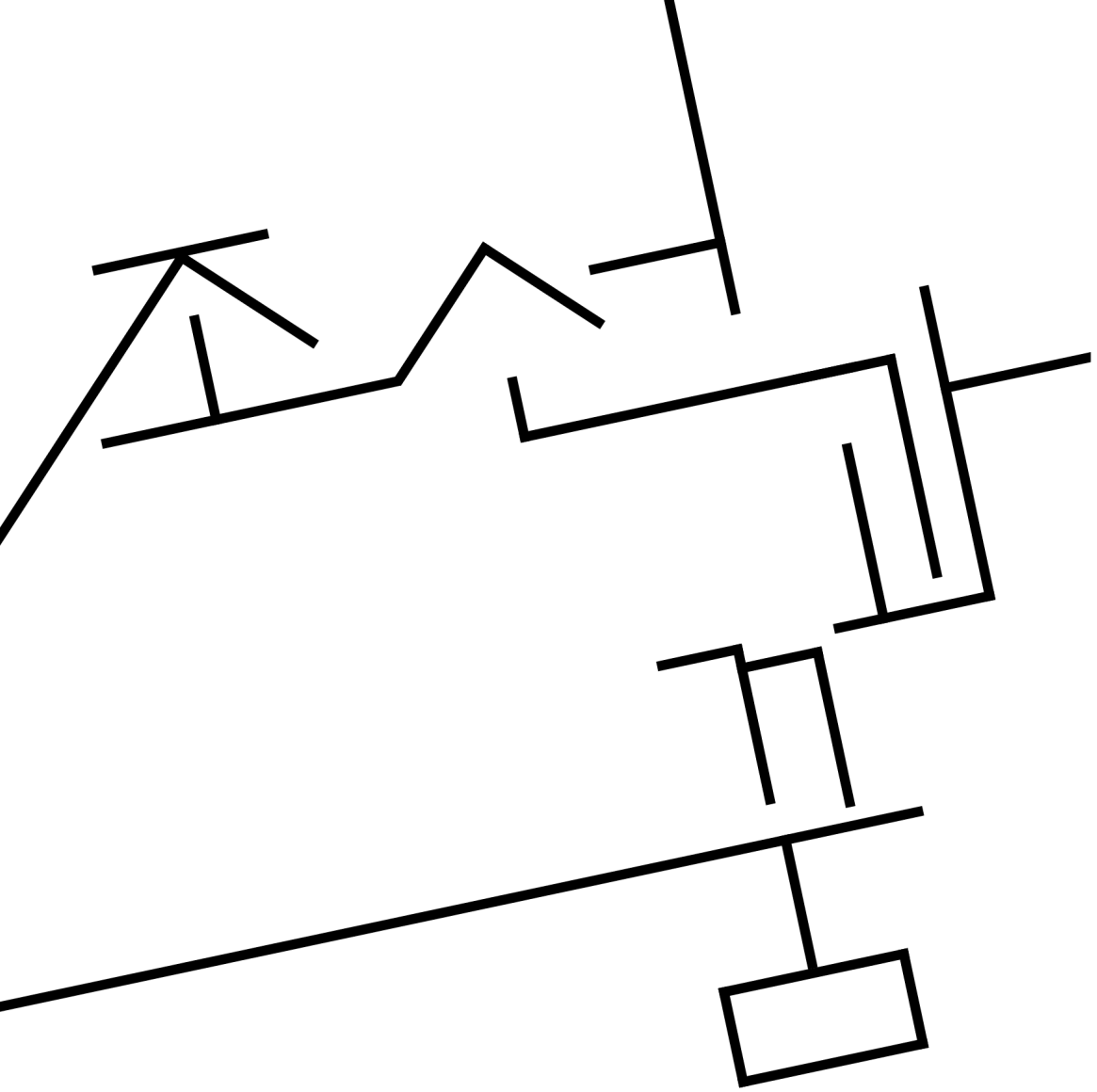
조선과 꿈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두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홍윤철

1960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은 책으로 ‘질병의 탄생’, ‘질병의 종식’, ‘팬데믹’, ‘코로나이후 생존도시’가 있다. 최근 출판된 책 ‘호모 커먼스’에서 인류의 빅히스토리를 통하여 공유와 공존에 대해 정리한 바가 있다.

삽화: 하은희



조선과 꿈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두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홍윤철 역사 소설

작가 인터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조선 역사의 진짜 모습, 실제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에 대해 쓰고 싶었어요. 조선 말기는 우리 현대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학이나 북학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싶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금강’이었어요. 몇 년 전 금강의 강경포구에 갔는데 그때 ‘아,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을 이 강물을 보니, 강경포구에서 흘러갔을 조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소설 제목을 ‘강경포구’로 잡았을 정도로 강렬한 풍경이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금강에 꼭 한 번 가보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의미의 ‘꿈’이 있어요. 첫째는 조선이 발전했으면 하는 꿈이에요. 둘째는 주인공 김옥이 꾸는 꿈인데, 자신의 문제와 처지를 해결하려는 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집단 무의식이에요. 이 점을 말하고 싶었어요. 김옥의 꿈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했어요. 독자들이 조선 말기 역사 속 과거로 들어가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이번 소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조선 말기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회였어요. 정말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주로 왕조 역사만 보는데 그들은 먹고사는 데 지장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왕조도 물론 권력 투쟁이 있고 했지만요. 그 당시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백성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조선 말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 번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요.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픽션인가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지만, 대부분의 인물은 픽션입니다. 인물들을 대상화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조선 말기 사람들처럼 묘사하려 했어요. 기본 틀은 진주민란, 동학농민전쟁, 소현세자와 북학파 이야기 등의 역사적 사건에 맞췄지만, 심리적 갈등 같은 건 제 상상이에요.

의학인으로서 지금까지 추구한 학적 주제들과 이번 소설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호열자’는 콜레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선 말기, 특히 전라도 지역이 콜레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알

려지지 않았죠. 이 사건을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병이 생기는 사회적 배경과 그 해결 과정을 중요하게 다뤘어요. 제 이전 저작들에서도 병이 단순히 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고 퍼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극복하려면 사회 시스템, 특히 도시 구조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호모 커먼스’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소설에서는 콜레라, 즉 호열자를 다루면서 조선 말기 사회가 얼마나 병적인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이 병적인 사회를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이전 저작들과 이번 소설 사이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전작들은 논리적이예요. 분석과 해석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썼어요. 이번에는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논리를 뛰어넘어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소설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소설 속 사람들이 스스로 관계를 맺도록 놔뒀어요. 그 장을 마련해 준 것은 작가인 저지만, 실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지 또 주인공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저는 관찰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은 좋기도 하고 나쁜

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큰 줄거리와 등장 인물은 제가 정했지만, 그 이후 이야기 전개와 인물 사이의 관계는 등장인물들이 만들어 갔다고 봐요. 저는 그저 이 모든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 기록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소설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점 때문에 소설이 더 재미있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상상하는 편이신가요?

의학계에서는 공감의 필요요. 환자들은 늘 괴로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집필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네요.

소설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인물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박문기와 김옥 둘 다 정말 멋진 인물들인데, 부족하지만 친근감이 드는 김옥에게 좀 더 애착이 가요. 김옥은 가진 것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인물이거든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조선의 악함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할 때, 김옥은 ‘왜 우리 조선은 힘이 약한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에피소드 중에는 맨 마지막에 박문현이 죽기 전에 박문기를 회상하

면서 김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소설에 슬픈 장면들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써놓고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문기에 대한 문현의 애정과 갈등 같은 것들이 표현된 장면인데 독자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창작 과정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원칙이 있으신가요?

창작은 무엇인가 세상에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이죠. 이 소설은 우리가 잘 모르던 과거를 다루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과 소통’이라는 주제를 갖고 썼어요. 김옥 같은 주인공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 느새 한국인으로서 그와 내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작가님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꿈꾸는 사회는 사실 전작 ‘호모 커먼스’에서 그렸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개인이지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이기론에서 ‘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문기가 ‘해동문화’를 쓰는 부분에 드러나 있어요. ‘기’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거든요. 이번 소설에서는 공존과 공생, 그리고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렸어요.

작가님의 작품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교훈이나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당시 조선이 직면한 현실과 갈등이 현대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과거와 현재의 사회 문제에는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죠. 이 책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해요.

이번 작품을 통해 스스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책을 쓰면서 조선 말기의 시대적 상황과 그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고민을 더욱 가깝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조선 말기의 상황이 현재의 한국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작품을 쓰면서 더 강렬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작활동 외에 작가님께서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편이에요. 주인공들

이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작품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 책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선과 꿈’의 후속편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특정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 계층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시대 사람들이 조선 말기의 시대와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자세를 보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시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제 책이 독자들이 공유하는 슬픔과 기쁨의 한 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홍윤철 작가 홈페이지

조선과 꿈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두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발행일 2024년 5월 15일

지은이 홍윤철

펴낸이 마형민

기획 신건희

편집 김현주 곽하늘

디자인 김안석

펴낸곳 (주)페스트북

주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판교로 20

홈페이지 festbook.co.kr

© 홍윤철 2024

ISBN 979-11-6929-107-1 03810

값 16,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주)페스트북은 '작가중심주의'를 고수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도록 돕습니다.
creative@festbook.co.kr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보내주세요.